

투데이 칼럼

눈물의 15분! 짧은 만남, 그리고 긴 이별

1964년 아시아 최초로 일본 도쿄에서 올림픽이 열렸다. 도쿄 올림픽은 북한이 정식으로 참가한 첫 올림픽으로 특히 이 올림픽에서 북한의 육상 신금단(辛金丹, 1938년 함경남도 이원군 출생)선수가 큰 주목을 받았다.

신금단 선수는 1960년 모스크바 국제육상선수권대회에서 400,800m 우승을 차지했으며, 1963년 인도네시아 신생국 경기대회(가네포 대회)에서 200m, 400m, 800m 경기에 출전해 400, 800m에서 비공인 세계 신기록 수립과 3개의 금메달을 획득했기에, 많은 이들은 따 놓은 당상(堂上:조선시대 정3품 이상의 직급: 현대의 총리급~차관급의 정무직공무원 및 1~2급 공무원과 비슷함 위치)처럼 그가 북한의 첫 올림픽 금메달을 안겨줄 것이라고 크게 기대했다.

그 당시 신금단은 '세계육상의 여왕'으로 불리는 등 세계 여자 중장거리 최강자였다. 그러나 신금단 선수에게는 남북 이산가족이라는 아픔이 있었다. 신금단 선수의 아버지(신문준,1915년생)는 신문에 대서특필되어 유명해진 신금단 선수의 사진을 보고 직감적으로 자신의



이 윤 희
파스코 대표이사

딸임을 알아차렸다.

신금단의 아버지는 1951년 1.4후퇴 때 북한군의 징집을 피해 남한으로 내려오면서 12세였던 딸을 포항 가족들과 헤어졌고, 시간이 흘러 도쿄올림픽에 참가한다는 딸의 소식을 들었다.

KOC(대한올림픽위원회)에 남북분단 이후 '한 번도 보지 못했던 딸을 만나고 싶다' 간청하였고 KOC는 인도적 차원에서 이를 허락했기에 도쿄로 향했다.

하지만, KOC는 1963년 가네포 대회가 정치적 의도가 다분하다고 판단, 방침에 따라 가네포 대회에 출전한 선수들은 올림픽 출전을 금지하였다. 이에 북한 선수단은 거세게 항의했지만, 결국 북한 선수단은 올림픽을 출전을 거부하고 북한

으로 돌아가기로 결정했다.

이로 인해 원래 올림픽이 끝난 후에 있을 예정이던 이산가족 상봉은 무산될 위기에 처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금단의 아버지는 딸을 만나기 위해 여기저기 끊임없이 노력했다.

그의 애절한 호소는 올림픽 관계자들에게 닿아 제일 올림픽 후원회장 '이유천'의 주선으로 IOC 도쿄 올림픽 조직위원회 사무차장 '쿠라이'와 북한 선수단장 '김종향' 간의 교섭을 통해 성사될 수 있었다.

1964년 10월 9일 북한 선수단이 귀국하기 위해 니가타로 가는 열차를 타기 직전 도쿄 조총련회관에서, 헤어질 후 14년의 세월이 흐른 후 (눈물 없는 불 수 없는 한 장면처럼, 아버지는 "금단아"를, 딸은

"아버이"를 부르며 서로 일사일사(일사일사) 애끓는 눈물의 상봉은 허망하리만치 짧은 교착 단 7분(일부 신문에서는 15분간?)의 극적인 만남으로 끝났다.

이렇게 올림픽 개막 하루 전, 신금단 부녀의 첫 남북 이산가족 상봉이 이루어졌고, 올림픽을 통해 14년 만에 부녀 상봉을 이룬 이 감동적인 이야기는 책과 노래(황금심 가수가 부른 '눈물의 신금단'), 영화(1965년 김기종 감독, 김승호(대현실) 주연, 허장강, 황정순, 이대엽 등의 '돌아오라 내 딸 금단아')로도 전해지며 많은 이들에게 깊은 감동을 주었다.

이후 신세 부녀는 남북이 대치한 냉전상황에서 영영 다시는 볼 수 없었고, 아버지는 기약 없는 남북 이산가족 상봉을 기다리다가 1983년(67세) 사망하였다.

신금단 선수는 비록 올림픽과 세계선수권대회에서 메달을 따지 못했지만 11번의 세계최고기록을 세웠고, 28개의 금메달을 획득하였다.

그 업적으로 북한에서 공훈체육인(1963년), 인민체육인(1966년) 칭호를 받았으며, 2024년 현재도 압록강체육단의 원로로 생존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독자제언

장마철, 빗길 안전운전 요령

매년 장마철이면 빗길 교통사고를 자주 목격할 수 있다. 대부분 사람이 빗길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하지만 빗길은 눈길만큼이나 미끄러지기 쉽고, 차량의 제동거리가 평소보다 길어지기 때문에 운전 시 주의해야 한다. 또한, 우산을 쓴 보행자의 경우, 시야가 확보되지 않아 다가오는 차량을 보지 못하고 보행할 수 있으므로 운전자는 방어 운전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장마철 빗길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운전 요령에는 무엇이 있을까?

첫 번째, 비가 오는 날에는 낮에도 전조등을 켜자! 비 오는 날에는 주간에도 낮이 어둡고, 주변에 주행 중인 차량이 일으키는 빗물 세례에 시야 확보가 어려우므로 전조등을 켜는 것이 좋다. 이는 운전자의 시야 확보를 도와줄 뿐 아니라 주변 차량에 내 차의 존재와 위치를 알려준다.

두 번째, 감속 운행을 하자! 빗길은

미끄러워서 브레이크를 밟아도 평소보다 제동거리가 늘어난다. 그래서 비 오는 날에 평소와 같은 속도로 운행하며 앞차와의 안전거리가 확보되지 않은 경우, 사고의 위험성이 더 커진다. 장마철에는 제한속도보다 최대 20%로 감속 운행하자.

세 번째, 수막현상을 조심하자. 차량의 타이어와 노면 사이 수막이 생겨 타이어가 노면 접지력을 상실하는 현상을 수막현상이라고 한다. 타이어와 노면이 닿지 않아 마찰력이 생기지 않기 때문에 타이어가 헛도는 느낌이 드는데, 이때 갑자기 브레이크를 밟거나 핸들을 꺾으면 차량은 속수무책으로 미끄러져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평소 타이어의 마모상태를 수시로 확인, 노후 타이어는 제때 교체하는 것이 좋다. 또한, 타이어의 공기압이 낮은 경우에도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평상시에 타이어 점검을 하는 것이 좋다.

이주최고청경찰서 경무과 손경

사진으로 보는 지구촌 소식

수문 열고 방류하는 댐사담



15일(현지시각) 중국 후베이성의 쑤사담에서 양쯔강 상류의 홍수에 대비해 9개의 수문을 열고 물을 방류하고 있다.

사설

'금파춤' 사진의 대가 송구진 사진전

'금파춤' 사진의 대가 송구진 작가의 '춤, 스머플다' 사진전이 지난 5일부터 11일까지 전북특별자치도 예술회관 차오름실 1실(2층)에서 열렸다.

송구진 작가는 2012년부터 2024년 지금까지 10여 년 동안 '금파춤'의 무대 공연을 촬영한 작품을 중심으로 전시했다. 움직이는 율동 속에는 숙연한 정지 동작이 있다.

그리고 그 정지한 동작 속에 흐르는 미묘한 움직임이 있다. 고기들이 유영하듯 아름다운 꽃을 향하여 너울너울 날아가는 나비같이 무용수의 우아한 춤과 장엄하고 웅장한 가락이 특징이다.

무용수의 동작인 표정, 눈빛, 손짓, 장삼 자락 등을 확대하며 무용수 얼굴의 섬세한 감정과 장삼 자락의 움직임을 나타냈다. 무용수의 하체인 발의 동작을 확대하여 발 디딤, 보폭, 흠 날리는 치맛자락 등을 촬영하여 관람자에게 입체감을 보여준다.

송구진 작가는 군산 중앙고, 우석고, 해성고, 영성고에서 교편을 잡았다.

한국사진작가협회 정회원, 2023 대한민국사진대전 추천작가 지정, 2024 한국사 진작가 협회 전국심사자격 인준, 전주 사진연구회 회장, 현대사진연구회 정회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그는 대한민국사진대전(특선 2회, 우수작품상 1회, 입선 4회), 전라북도사진대전(특선 2회, 입선 6회), 대한민국관광공사 주최 제39회 대한민국 관광 사진 공모전 입상, 2016 한국 환경사진대전 전국공모전 등에 입상했다.

한편 전북특별자치도 전주를 대표하는 '금파춤' 보존회는 우리의 전통적인 춤과 세계 각지의 춤을 함께 소통하고 불어 박힌 예술적 골재를 벗어나 우리 민족혼의 전통성과 창조성, 예술성, 보편성, 지역성을 아우르며 새로운 춤선을 표현하고 있다.

최저임금 1만원 넘어

최저임금이 가까스로 1만 원을 넘어섰다. 그러나 여전히 후폭풍이 곳곳에서 감지되고 있다.

2025년 내년부터 최저임금이 처음으로 시간당 1만 원을 넘겨 1만 30원으로 인상된다. 7월 12일 새벽, 노동계와 경영계가 표결로 최종 결정했는데, 인상률은 1.7%이다.

노동계는 물가 인상률에도 미치지 못한다고 반발했고, 소상공인 측도 최저임금 인상에 유감을 나타냈다 올해 최저임금 9천800원에서 170원, 1.7% 오른 것으로 제도가 도입된 지 37년 만에 처음으로 최저임금 1만 원 시대가 열렸다.

지난 5월 첫 협상을 시작할 때 노동계는 1만 2천6백 원을 요구했고 경영계는 9천8백60원 동결을 제시했다. 10차례 협상으로 금액 차를 줄였지만 최종 합의에 이르지 못하자, 공익위원들이 중재 구안을 제시했고, 표결을 거쳐 경영계가 내놓은 최종안이 최저임금으로 결정됐다.

최저임금 심의가 개시된 지 105일 만이다.

이 과정에서 민주노동 측 의원들은 공익위원들이 제시한 심의촉진구안이 터무니없다며 투표를 거부하고 회의장을 나왔다.

물가 폭등에 따른 물가 상승률 등락 그리고 실질임금이 2년째 계속 하락된 것인데 이것이 전혀 반영되지 않은 채 심의촉진구안이 제시된 것에 유감이라고 했다.

인상 폭은 올해 물가상승률 예상치인 2.6%보다 작고 역대 인상률 중에서도 두 번째로 낮다. 한국노동청은 "아쉬운 결정이지만 받아들여졌다"고 밝혔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최저임금이 이미 높아 소폭 인상이어도 너무 힘든 상황이 될 것"이라며 유감을 표명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폐업, 대출 증가 등의 리스크가 커지는 상황에서 취약한 근로자와 소상공인의 공존을 막았다"고 비판했다.

사외기고는 본보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도 있습니다.

용기와 희망을 주는 인간을 위한 정론지

"더 좋은 신문, 더 사랑 받는 신문, 독자와 함께하는 신문"을 위해 전주매일의 전 직원들은 '전북 최고의 신문'을 제작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진정한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중앙지를 답습하는 행태를 벗어나 보다 깊이 있게 내 고장 소식을 빠르고 정확히 독자 여러분들에게 전달하겠습니다.

당신의 가려움을 속 시원하게 긁어 드리기 위해 대안적 비판 기능을 강화하고 있으며 한 단계 더 성숙한 네트워크 구축과 함께 지역발전의 수레바퀴를 힘차게 굴러갈 것이라는 약속을 드립니다.

인간중심 · 도덕중심 · 지역중심 **전주매일**